

성격특성에 따른 중년기의 적응에 관한 연구

- 성역할 정체감과 내외통제적 성격을 중심으로 -

The Impact of the Personality on the Adjustment in Mid-Life

이화여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대학원: 金 賢 華

Dept. of Home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Ewha Women's University

Kim Hyun Wha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학과

조교수: 趙 炳 恩

Dept. of Home Economic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ssistant Prof. : Cho Byung Eun

목 차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문제의 제기와 연구목적 II. 이론적 고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년기의 개념 2.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중년기 적응 3. 성격특성과 중년기 적응 III. 연구문제 및 용어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문제 2. 용어의 개념정의 IV. 연구문제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대상 2. 측정도구의 구성 3. 자료수집의 절차 및 분석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V. 결과 및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년기 남녀의 성역할 정체감, 내외통제 성격, 생활만족도 2.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중년기 생활만족도 3. 성격특성과 중년기 생활만족도 4. 중년기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 VI.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
|---|---|

= 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and adjustment in the mid-life.

The subjects of the study consisted of 374 married persons(185 men and 189 women) who live in Seoul and are 40 to 59 years old and whose last child is in middle school.

Bem's short form BSRI, Rotter(1966)'s Internal-External Scale and Hayes & Stinnett(1971)'s MYLSS were used as measurements tools.

The major results of the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

1) While sex-role identity of middle aged men appeared in the following order ; Androgynous, masculine, undifferentiated, feminine, sex-role identity of middle aged women appeared in the following order ; Undifferentiated, androgynous, feminine, masculine.

Both men and women had the moderate scores on the locus of control. The middle aged expressed a moderate level of life satisfaction with middle aged men reporting significantly a higher life satisfaction than did women.

2) Socio-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age, education, occupation and income have turned out to be significant on the life satisfaction of middle aged men. As for the life satisfaction of middle aged women, age, education, husband's occupation and religion had significant influences.

However, employment status of women, family structure, marital duration, number of child, status of last child, status of first child had no significant influences on Mid-life satisfaction.

3) Mid-life satisfaction of men and women was influenced significantly by sex-role identity and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Those men described as masculine and those women androgynous in the sex-role identity had the highest life satisfaction. On the other hand those of undifferentiated in the sex-role identity had the lowest life satisfaction.

High levels of internal control were associated with high levels of life satisfaction.

4) The variables affecting the life satisfaction of middle aged men and women were education, income, sex-role identity, internal control. These 4 variables explained 27% of the life satisfaction of middle aged men and 24% of the life satisfaction of middle aged women.

I. 문제의 제기와 연구목적

최근에 전생애 발달적 관점에서 중년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중년기에 대한 연구결과 40, 50대는 개인의 내적·외적 변동에 적응해야 하는 전환기로 간주되고 있다.

지금까지 중년기를 다루어 온 대부분의 국내외 문헌들은 중년기를 변동에 따른 불안정감과 긴장을 수반하는 위기의 시기라 보는 견해와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로 보는 견해가 상반되고 있고, 발달상의 변화와 관련된 중년기의 위기를 강조하며 일반적으로 중년기 위기가 보편적이라는 관점이 만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년기에 관한 연구들은 중년기의 적응을 위기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위기감과 관련된 변인들을 밝히고 있다(김명자, 1989, 1991; 신기영, 옥선화, 1991). 그러나 위기는 자신에 대한 보다 풍부한 자각과 새로운 적응력을 제공하여 다음 단계로의 개인의

성숙발달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중년기 변화에 내포되는 심리적 긴장과 상실감등의 위기감의 경험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 또한 중년기의 변화가 항상 위기를 초래하지는 않으며, 이 시기의 여러 변화가 손실보다는 이점이 될 수도 있으므로, 자신의 생활의 모든 영역을 재평가하는데서 오는 행복과 만족의 주관적 감정 상태인 생활만족도의 측면에서 중년기의 적응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러 연구자들은 개인의 성격특성이 중년기의 적응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성격은 개인의 일생을 통한 심리적 안녕과 변화하는 생활환경에 대한 적응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나, 성격특성을 기초로 중년기의 적응을 다룬 국내외 선행연구는 별로 없는 실정이다.

다양한 성격특성 중 성격형 정체감과 내외통제적 성격은 많은 연구에서 적응과 관련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Palmore & Luikart, 1972; Wolk & Kurtz, 1975; Worell, 1978; Bassoff, 1984; Carp, 1985; 김태현, 유은희, 1987; 장재정, 1987; 박경숙, 김명자, 1991; 지연경, 1991). 특히 성역할 정체감은 부모 역할이 감소되는 중년기 이후에 남성성, 여성성이 통합되어 양성적으로 변화하고, 그러한 변화가 중년기 적응에 긍정적이라고 한다. 이러한 외국선행 연구의 결과가 자녀진수기 단계가 뚜렷이 보이지 않고, 청소년 자녀가 있는 중년기 부모의 경우 오히려 자녀의 뒷바라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실정인 우리나라의 중년기 남성과 여성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는 미지수이다. 횡단적 연구에서 개인의 성격변화를 보기는 어렵지만, 부모역할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40대 이후 중년기 남녀에게 양성성 성역할 정체감의 분포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 성역할 정체감 유형과 중년기에서의 적응을 관련시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여러 연구들에서 내외통제적 성격이 긴장이나 위기를 주는 스트레스 상황하에서의 적응과 관련되는 성격특성이라 보고하고 있다(Felton & Kahana, 1974; Krause, 1986; Levitt et al, 1987; 지연경, 1991). 중년기 사람들은 자기 자신내의 변화와 생활환경에서의 변화들에 계속 적응을 해야만 하고, 이러한 변화들은 어떤 형태로든 개인에게 긴장과 위기의 감정을 주게 되며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가 있으므로, 중년기의 적응과 내외통제적 성격을 관련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년기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위기감을 중심으로 적응을 파악하였고 중년기의 적응과 관련된 변인들을 연구하면서 개인의 성격특성은 거의 다루지 못했던 제한점을 해결해 보고자 적응과 관련되는 성격특성인 성역할 정체감 및 내외통제적 성격과 중년기 남녀의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개인과 가족적으로 증가된 인생후기를 보다 성공적으로 준비하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중년기에 대한 연구가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중년기 연구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고찰

1. 중년기의 개념

중년기라는 개념에 대하여 학자들마다 의견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지금까지의 중년기 연구에서는 많은 혼란을 야기시켜왔다. 즉, 학자들간에 인생단계의 어느 기간을 중년기로 할 것이며, 중년기는 몇세에 시작되어 몇세에 끝나는가, 중년기에 관한 연구에서 그 대상으로 누구를 포함시킬 것인가 등의 문제가 아직까지도 명확하지 못한 상태이나, 중년기 발달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생활연령과 가족생활 주기를 주요한 지표로 사용하여 중년기의 시기를 설정하고 있다.

중년기를 나타내는 지표를 생활연령으로 본 경우, 학자에 따라 35~40세 부터 55~56세 까지의 시기를 중년기로 본다. Jaques(1965), Sheehy(1976), Gould(1978)는 35~45세, Vincent(1972)는 35~55세, Erikson(1956), Levinson(1978)은 40~60세, Bühler(1968)는 44~65세를 중년기로 구분하고 있다(김명자, 1989 재인용). 또한 우리나라의 중년기 연구에서 김재은(1988)은 40~60세, 김남순(1986)은 40~59세, 이강윤(1986)은 39-59세, 장재정(1987)은 30~60세를 중년기로 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 중년기는 연령상 40대, 50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생활주기를 중년기의 지표로 사용할 경우에는 연령 자체보다는 가족관계의 변화과정과 생활사건 개념등에 관심을 둔다. Borland(1978)는 가족생활주기를 기준으로 연령과는 상관없이 막내자녀의 독립으로 부터 은퇴 까지를 중년기로 구분하였으며, 진수기(launching stage), 빈-보금자리기(Empty-nest period), 탈부모기(postparental period)등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막내자녀가 결혼하기 이전까지는 대부분 부모로부터 완전한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 어렵고, 막내자녀가 결혼할 때는 대부분 부부가 노년이 되며, 자녀가 결혼한 이후라 할지라도 부모와의 정서적, 물질적

유대가 강하기 때문에 중년기를 서구사회의 가족 생활주기 개념을 적용하여 구분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중년기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생활연령과 가족생활주기의 두 가지 관점에서 중년기를 복합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연구(김명자, 1989; 강인, 1990; 박경숙, 김명자, 1991; 신기영, 옥선화, 1991)에서 보편적으로 중년기를 연령면에서는 40~59세에 속하면서 막내자녀의 위치가 사춘기 이상에 속하는 시기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고찰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를 생활연령과 가족생활주기 개념을 동시에 고려하여, 생활연령면에서는 40~59세에 속하면서, 가족생활주기를 기준으로 막내자녀가 중학교 이상에 재학중인 학부모를 중년기로 구분한다. 중학교 이상인 자녀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려는 성향이 증가하고 자기만의 세계를 갖고자 시도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중년기 적응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성, 연령, 교육정도, 직업, 가계소득, 가족형태, 결혼지속년수, 종교, 자녀수, 막내자녀의 위치, 맏자녀의 위치와 중년기 적응의 관계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많은 연구들에서 성, 연령, 종교와 같은 변수와 중년기 적응사이에는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으나, 가계소득, 교육정도, 직업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는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남성과 여성의 성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도 있으나(Bradburn & Caplowitz, 1965; Palmore & Luikart, 1972; Edwards & Klemmack, 1973; Palmore & Kivett, 1974 재인용),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성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Hayes와 Stinnett(1971)는 중년기 남성의 생활만족도가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고 했으나, 강인(1990)과 김명자(1991)는 중년기 부인이 남편보다 스트레스 사건발생 및 인지수준이 더 높다고 했으며, 김명자(1989)의 연구결과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 수준이 남성보다 더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연령과 중년기 적응과 관계에서 46~70세까지의 남녀 378명의 생활만족도를 조사한 Palmore와 Kivett(1974)는 연령대별로 생활만족도의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Sheehy(1976), Gould(1978), Jaque(1965), Jung(1933)은 35~45세에, Levinson(1978)은 40~45세에 가장 높은 위기감을 경험한다고 하여 40대 초반에 더 적응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었으나, Lifton, Calaruso와 Nemiroff등은 50~60세에 위기감을 느낀다고 하였다(Kimmel, 1980 재인용). 김명자(1989)는 중년기 남성의 경우에 연령이 적을수록 여성의 경우에는 자각 연령이 낮을수록 위기감수준이 낮았다고 하여 중년기에 연령이 낮을수록 적응을 잘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연구결과 교육정도, 직업, 가계소득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적응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며, 대부분의 연구결과에서는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높을수록 중년기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Hayes & Stinnett, 1971; Palmore & Kivett, 1977; Palmore & Luikart, 1972; 이강운, 1986; 김명자, 1989; 박경숙, 김명자, 1991). 개인에게 제공되는 자원으로서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관련한 중년기 적응에 대한 연구결과는 대체로 하류계층의 정신건강이 낮은 것으로 드러나, 자원의 결핍이 중년기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Cox, 1980; Lieberman, 1980; Giele, 1982). 즉, 하류계층의 남성일수록 모든 영역에서의 고립감이 증가하여, 중년기에서 계층이 낮다는 것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상류계층 남성은 사회봉사단체, 클럽활동을 통하여 후손을 위해 공헌한다는 느낌을 지니며, 이것이 중년기 적응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Farrell & Rosenberg, 1981). 중년기 생활만족도와 소득, 사회경제적 지위는 유의한 연관이 있으며, 이것은 남성에게 경제적 제공자(provider role)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고 자아정체감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소득층 남성의 생활만족도가 낮고 반대로 위기감이 높아 적응에 어려움이 따른

것으로 보인다.

종교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회활동으로서 종교가 있는 중년기 남녀의 경우 생활만족도가 더 높고(Hayes & Stinnett, 1971), 종교를 가진 중년여성의 위기감이 더 낮다고 한다(김명자, 1989; 신기영, 옥선화, 1991). Oscar(1982)는 종교생활이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도록 하여 개인에게 위안감을 제공하며, 종교생활을 통하여 기대와 현실과의 불일치에서 오는 갈등을 조절하여 개인의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이나 공동체 의식을 지니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생활만족도 증진에 기여한다고 한다(김명자, 1989 재인용).

이상의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성, 연령, 교육 정도, 남편의 직업, 가계소득, 종교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중년기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3. 성격특성과 중년기 적응

1) 성역할 정체감에 관한 연구

성역할이란 한 개인이 그가 속해 있는 문화권 내에서 남성 또는 여성으로 특징지워 질 수 있는 일련의 특성을 의미하는 것이고(Block, 1973), 성역할 정체감은 개인이 자기자신을 남성적으로 또는 여성적으로 여기는 정도를 가리킨다(Kagan, 1971).

최근의 연구결과 성역할의 발달은 전생애적 과정으로서, 일반적으로 성차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생활상황이 계속 바뀌어지는 생활주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한다고 밝혀지고 있다. Neugarten과 Gutmann(1958), Neugarten(1964, 1968)은 나이가 들면서 중년기 남성은 그들의 본성에서 친교적, 양육적, 협력적이고 감각적 행동을 더 수용하게 되는 반면 여성은 그들의 공격성이나 자기중심적 행동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책감을 덜 느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Dobson, 1983). Gutmann(1975, 1977, 1978)은 몇개의 횡단적 연구들을 통해 부모역할의 부과는 남성, 여성에게 직접적으로 심리적 변화를 초래시킨다는 가설을 세웠다. 즉, 젊은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녀의 신체적,

정서적 요구에 뚜렷한 구분이 있는 역할로서 반응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규정된 그 역할구분 때문에 부모의 성역할 태도에 구분이 생기게 되나, 중년기에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감소되면 초기 성인기와는 다른 역할의 변화가 발생하여, 남성은 수단적 역할수행에 방해가 되므로 억제했던 여성성을 표출하고 여성은 남성성을 표출하여 더 지배적이고 독립적이 된다고 하였다. Cooper와 Gutmann(1987)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부모역할에의 참여를 통해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심리적 양극화가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성공적인 자녀양육을 위한 노력으로써 주위여건과 조화를 이루기위해, 공격성같은 여성내부의 남성성은 억눌려지게 되었다고 했다. 또한 이러한 적극적인 부모 역할에의 책임이 끝나게 되면 여성내부의 남성성을 억누르려는 노력이 적어지고 대신에 자기주장같은 억눌려진 남성성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게 된다고 했다.

이렇게 볼 때 중년기의 남녀 모두 자신의 상반되는 성적 측면에 대해 표현하기 시작하여 남성들은 여성적인 측면을 그리고 여성들은 남성적인 측면을 나타내어, 남성적 성향과 여성적 성향의 성격특성의 교차가 일어나게 된다. 중·노년기의 이러한 포괄적인 변화는 가정내의 부부간의 지위를 역전시키거나 최소한 평정시키며, 소위 남성적 및 여성적 특질을 재분배함으로써, 인생의 후반기에는 양성성적인 시기가 보편적으로 도래하고 있음을 예고한다(Brim, 1976).

이와 같이 성역할과 생활주기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생활주기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 유형의 변화는 개인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Mussen(1961, 1962)은 남성적인 남자는 청년기인 17~18세 동안에는 적응을 잘하며 자존감이 높고, 긍정적인 정서를 지니며, 사회적 기능도 순조롭게 잘 수행하지만, 20년이 지난 성인기에는 지배력이 낮고, 자아수용도, 자기반성, 사회성, 자아신뢰도, 지도력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불안, 신경증세와 관련이 된다고 한다(장재정, 1987. 재인용). Sinnott(1982)는 노년기에 양성적인 노인이 가장 높은 정신건강점수를 보였고, 남성성이 여성성보

다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했다. 여성의 경우 여성적인 여자는 걱정이 많으며, 사회수용도가 낮으며, 결혼과 어머니라는 전통적인 과제를 잘 수행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중년기가 되었을 때 우울증에 걸리는 비율이 높고(장재정 1987. 재인용), 노년기에 생활에 부적응을 보이며 자기비판의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Lowenthal et al, 1975) 여성적인 여자의 적응력이 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환의 시기에 있는 중년기 남녀가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인 변화에 적응하고 성공적인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생활상황에 적합한 성역할 정체감 유형의 변화가 필요하다. 즉 자녀양육 역할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중년기에 성역할 정체감의 변화는 하나의 적응이라고 볼 수 있으며, 중년기 이후 양성성으로의 성역할의 통합은 성숙한 사람의 근본적인 발달과업으로 생각할 수 있다(Bem, 1975).

성역할 정체감과 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남성적인 남성이나 여성적인 여성의 심리적 적응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들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연구들은 남녀 모두에게서 여성성이나 미분화형보다는 남성성이나 양성성을 가진 사람이 보다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Sinnott, 1982 ; Whitley, 1984 ; Bassoff, 1984). 이러한 결과는 성유형화된 사람은 자신의 남성 또는 여성의 자아개념에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남성성, 여성성의 과업에 따라서만 행동하지만, 양성적인 사람은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각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것이라 판단되어지는 것에 의해 남성적 또는 여성적인 다양한 자원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융통성 있게 적응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Bem, 1975 ; 김태현, 유은희, 1987).

우리나라의 연구결과에서도 김태현, 유은희(1987)는 노인기에서의 성역할 정체감과 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에서 양성형은 역할이 흐려지는 노년기 생활에서 보다 만족스러운 생활을 보낼 수 있노리라는 가설을 세웠는데, 이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 되었으며, 박경숙, 김명자(1991)의 연구에서도 양성성 혹은 남성성을 소유한 중년기 여성이

잘 적응하고 있었고 중년기 여성의 적응에 영향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 성역할 정체감이라는 연구결과로 미루어 중년기 적응과 성역할 정체감이 높은 인과적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년여성의 성역할 정체감과 심리적 건강에 관해 연구한 장재정(1987)의 연구결과에서도 한국 중년 여성의 심리적 건강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남성성과 양성성이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함을 나타낸다.

여러 선행연구의 고찰 결과 신체적인 변화와 부모역할의 감소로 인한 심리적 변화가 따르는 중년기에 양성성과 남성성이 생활만족도와 관련되리라 생각된다.

2) 내외통제적 성격에 관한 연구

여러가지 성격특성중의 하나인 내외통제성은 개인이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자기 자신의 행동 여하에 달려있다고 지각하는지, 혹은 재수, 운, 기회 또는 자신의 통제나 이해 밖의 어떤 힘이 작용한 결과라고 보는지의 그 정도를 가리키는 것이다(Strickland, 1977). 즉, 어떤 개인이 성공이나 실패와 같은 일의 결과의 원인을 자기자신의 노력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내적 통제신념을 가졌다고 보고 이 사람의 성격은 내적통제적 성격이라고 하며, 이와 반대로 성공, 실패가 자기탓이 아니라 전적으로 운이나 외적인 힘에 달렸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외적통제신념을 가졌다고 보고 이 사람의 성격을 외적통제적 성격이라고 한다. 그러나 내적 통제신념과 외적 통제신념은 명확히 구분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내적 통제성과 외적 통제성을 양극에 둔 연속선상에서 그 정도에 따라 변화, 발달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내외통제성과 관련된 연구들은 내외통제 변인이 행동을 예언하고 설명하는데 유효한 변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Rotter(1966)는 어떤 개인이 자신이 내제적으로 통제된다고 믿는 사람은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성격특성을 가지는 반면에 외제적으로 통제된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내적으로 통제하는 사람이 더 높은 적응력을 가진

다고 보고한다. Fitch(1970)는 내외통제성과 자존심(self-esteem)사이에는 낮은 의미있는 상관성이 있으며, 특히 낮은 자존심을 가진 사람은 외적통제의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박석기(1984)와 장경문(1984)은 내제적 통제성이 강할수록 자아개념이 높고 긍정적이라고 했고, 이훈만(1986)은 인간의 삶의 태도와 행동 및 적응에서 공통적으로 내외통제성이 관련된다고 하였으며, 이종숙(1988)은 내제적 통제성격을 가진 주부의 결혼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자아개념이나 결혼만족도는 개인의 적응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내제통제적인 사람의 자아개념이 높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적응력이 더 높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러 연구에서 내외통제적 성격이 노인의 노후 적응에 대한 심리적인 영향을 설명하는데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고(Crandall, 1965; Lefcourt, 1979; Suh, 1987 재인용), 내외통제적 성격과 은퇴 후 적응의 관계에서 내적인 통제신념을 가진 사람이 생활만족도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고 자아정체감 유지 및 더 나은 적응을 나타내었다고 한다(Felton & Kahana, 1974; Wolk & Kurtz, 1975; Wolk, 1976; Baker, 1976; Kivert, 1976; Schulz & Decker, 1985). 또한 내외통제적 성격이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에 관련됨을 많은 연구들에서 보고하고 있다. Palmore와 Luikart(1972)는 45~69세의 중년기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변인들을 조사한 결과 내적통제신념은 여러 변인들 중 생활만족도에 세번째로 강한 영향력을 가졌고, 내적통제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에게 더 만족함을 주는 생활방식으로 살고 있으며, 비교적 만족한 생활경험을 가진 사람은 내적통제 신념을 더 강하게 발달시킬 수 있었다고 보고함으로써 내적통제 신념이 생활만족도와 관련됨을 보여준다. Krause(1986)는 351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심리적 안녕에 스트레스가 되는 생활사건의 영향을 증대하는데 통제의 소재의 역할을 재개념화하려 하였다. 그 결과 지나치게 내적통제 신념을 가진 노인이 부정적인 스트레스 사건의 해로운 영향에 특히 더 상처를 입기 쉬우나, 지나친 내적통제 신념이 전적으로 유해하지는 않

았고 어떤 스트레스원(stressor)을 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은퇴한 노인을 대상으로 내외통제성과 생활만족도를 연구한 지연경(1991)의 연구결과 외적인 통제신념을 가질수록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지각 정도가 높았고, 내적인 통제성격이 강할수록 은퇴한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았다고 한다.

연령증가에 따라 발달과 성숙을 거치면서 새로운 상황에 처할 때, 그런 상황은 처음 맞이하게 되는 낯선 상황이므로 스트레스가 생겨날 수 있고(윤진, 1985), 중년기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 부모역할의 감소등 발달단계에 따른 새로운 상황은 개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변동과 전환의 시기인 중년기에 처해있는 개인의 적응은 내외통제적 성격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 생각되며, 여러 연구를 종합해 본 결과 내적통제적 성격을 가진 사람이 중년기 생활에 더 잘 적응할 것이라 기대된다.

III. 연구문제 및 용어의 정의

1. 연구문제

개인의 성격특성 중 성역할 정체감과 내외통제적 성격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성격특성이 중년기에서의 생활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중년기 남녀의 성역할 정체감, 내외통제적 성격, 생활만족도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중년기 남녀의 생활만족도는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가?

[연구문제 3] 성격특성에 따라 중년기 남녀의 생활만족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3-1)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중년기 남녀의 생활만족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3-2) 내외통제적 성격에 따라 중년기 남녀의 생활만족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4] 중년기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사

회인구학적, 성격적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용어의 개념정의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조작적 개념으로 정의하여 사용한다.

1) 중년기

일반적으로 중년기는 청소년기와 노년기의 중간시기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를 생활연령과 가족생활주기단계를 근거로 하여 막내자녀가 중학교이상에 재학중인 40세에서 59세 사이의 시기로 정의한다.

2) 성역할 정체감

개인이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전통적 의미의 남성적인 성격특성 또는 여성적인 성격특성을 가졌다고 보는가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성역할 정체감이다.

일반적으로 남성에게 더욱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특성(공격적, 지배적, 독립적, 활동적 등 도구적인 역할)을 반영하는 한 개인의 행위, 태도, 가치관 등을 남성적 성역할 정체감이라 하며, 여성에게 더 잘 어울린다고 간주되는 특성(의존적, 감정적, 수동적, 비활동적 등 주로 표현적인 역할)을 반영하는 한 개인의 행위, 태도, 가치관 등은 여성적 성역할 정체감으로 나타내어진다. 또한, 남성성 특성과 여성성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통합시켜 상황에 따라서 남성의 도구적 역할과 여성의 표현적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으면 양성적 성역할 정체감이라 하고, 이와는 반대로 미분화된 성역할 정체감이란 한 개인의 정체감 표현에 있어서 전통적인 남성성 특성과 여성성 특성중 어느 한 쪽도 잘 표현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장재정, 1987).

3) 내외통제적 성격

개인이 자신의 생활이나 성공, 실패와 같은 사건의 원인을 자기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라고 지각하면 내적 통제성을 가졌다고 보고 이 사람의 성격은 내적통제 성격이라고 하며, 이와 반대로

성공, 실패가 자기탓이 아니라 자신이 조절할 수 없는 운이나 행운, 기회 등의 외부적인 힘에 의한 것으로 지각하면 외적 통제성을 가졌다고 보고 이 사람의 성격을 외적통제적 성격이라고 한다.

4) 생활만족도

중년기의 생활만족도는 현재상황에 대한 만족 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까지의 생활에 걸친 종합적인 만족(Neugarten, Havighust & Tobin, 1961; 홍순혜, 1984)으로 보는 노년기의 생활만족도와는 다르다. 중년기는 자신과 자기의 생을 재평가하는 시기이므로, 중년기의 생활만족도는 한 개인이 자신의 부부관계, 건강, 생활수준, 직업, 자녀관계, 여가시간과 사회활동, 자아개념 등의 생활전반에 대한 재평가에서 오는 행복과 만족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태도로 정의한다.

IV.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현재 결혼상태에 있는 중년기 남성과 여성으로, 적어도 중학교 이상에 재학중인 막내자녀를 둔 40세에서 59세까지의 학부모로 한정하였다.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사람을 제외한 이유는 중년기 생활만족도 척도 중 부부관계를 묻는 하위 척도가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 결혼상태에 있는 사람만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사회계층별로 연구대상을 고르게 표집하기 위하여 의도적 표본추출을 하였다. 서울시내의 강남구, 강서구, 구로구에서 각각 2개교씩 선정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부모 중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대상자를 교사를 통해 선정하여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연구대상자의 연령이 40대에 편중되는 것을 고려하여 서울시내 2개 대학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374)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성별	남성	185(49.5)	가계	60만원 미만	24(6.4)	
	여성	189(50.5)		60~90만원	69(18.4)	
연령	40~44세	106(28.3)	소득	90~120만원	94(25.1)	
	45~49세	141(37.7)		120~150만원	66(17.6)	
	50~54세	93(24.9)		150~180만원	38(10.2)	
	55~59세	34(9.1)		180~210만원	32(8.6)	
	남성 평균연령	49.3세		210만원 이상	51(13.5)	
	여성 평균연령	45.9세	가족 형태	확대 가족	60(16.0)	
교육	중졸이하	핵 가족		314(84.0)		
정도	고졸	79(21.2)	종교	기독교	110(29.4)	
	대학중퇴, 전문대졸	181(48.5)		불교	108(28.9)	
	대학교 졸업	28(7.5)		천주교	40(10.7)	
	대학원 이상	74(19.8)		기타	3(0.8)	
	무응답	11(2.9)		무교	113(30.2)	
남편의 직업	무직	6(1.6)	결혼 지속 년수	20년 이하	155(41.6)	
	행상,수위,청소부등	12(3.2)		21~25년	130(34.8)	
	피고용,기술자, 서비스직 종사자	36(9.7)		26~30년	63(16.9)	
	자영상공인,일반업무	110(29.6)	31년 이상	25(6.7)		
	일반사무직,보안업무	16(4.3)	평균 결혼지속년수	22.6년		
	계장급이하공무원,회사원	48(12.9)	자녀수	1명	11(2.9)	
	기술직	25(6.7)		2명	129(34.5)	
	관리직	83(22.3)		3명	137(36.6)	
전문직,대기업주 등	36(9.7)	4명		70(18.7)		
		5명 이상		27(7.2)		
부인의 직업	무직,가정주부	299(79.9)	평균 자녀수	2.9명		
	행상,수위,청소부등	3(0.8)		막내 자녀의 위치	중학교 재학	158(42.2)
	피고용,기술자, 서비스직 종사자	4(1.1)			고등학교 재학	167(44.7)
	자영상공인,일반업무	47(12.6)	대학교 재학		36(9.6)	
	계장급이하공무원,회사원	4(1.1)	기타		13(3.5)	
	기술직	13(3.5)	만자녀 위치		중학교 재학	6(1.7)
	관리직	3(0.8)		고등학교 재학	105(28.9)	
	전문직,대기업주등	1(0.3)		대학교 재학	116(32.6)	
여성의 취업 유무	유	38(20.1)	위 치	기타	94(25.9)	
	무	151(79.9)		결혼	42(11.6)	

2. 측정도구의 구성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질문지로서,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과, 성역할 정체감, 내외통제적 성격, 중년기 생활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총 8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 교육정도, 직업, 가계소득, 가족형태, 결혼지속년수, 종교, 자녀수, 막내자녀의 위치, 만자녀의 위치등을 알아보기 위한 11문항으로 이루어졌다.

2) 성역할 정체감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 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단축형 BSRI(Bem Sex Role Inventory)를 한글로 번안한 정옥분(1986)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단축형 BSRI의 문항수는 남성성 척도 10문항, 여성성 척도 10문항, 채점을 하지 않는 중성문항(neutral item)이 10문항으로 모두 30문항이다. 중성문항의 목적은 연구대상자가 이 척도가 무엇을 측정하는 것인지 알아 차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단축형 BSRI는 원래 7점으로 구성된 Likert식 척도였으나, 이것은 중년기 남녀에게 무리한 요구인 것으로 판단하여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5점("언제나 그렇다")까지의 5점 Likert식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BSRI의 채점방법으로 중앙치 반분법(median-split-method)을 채택하였다. 즉 남성성 척도와 여성성 척도의 중앙치를 기점으로 해서 남성성, 여성성 점수가 모두 중앙치 이상이면 양성적 집단에, 남성성 점수는 중앙치 이상인데 여성성 점수가 중앙치 이하이면 남성적 집단에, 이와 반대로 남성성 점수는 중앙치 이하이고 여성성 점수가 중앙치 이상이면 여성적 집단에, 마지막으로 남성성, 여성성 점수가 모두 중앙치 이하이면 미분화 집단에 배당하여 연구대상자를 네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단축형 BSRI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가 남성성 문항은 .80, 여성성 문항은 .84로 만족스럽다고 할 수 있으며, 요인분석을 이용한 많은 연구결과 이 척도의 타당도가 입증된 바 있다.

3) 내외통제적 성격

본 연구에서 내외통제적 성격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는 Rotter가 1966년에 제작한 Internal-External Scale이다. 이 척도는 원래 23문항인데 반복적인 질문이 많다고 생각되어 내외통제적 성격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11개 문항을 발췌,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는 내적통제 문항과 외적통제 문항이 한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2개의 응답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이 측정도구의 채점방식은 내적통제 문항에 표시했을 때 1점을 주고, 외적통제 문항에 표시했을 때는 0점을 주는 방식으로 11문항을 가산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가장 외적통제적 성격인 0점에서부터 가장 내적통제적 성격인 11점까지의 점수 분포를 나타내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I-E 척도를 KR-20계수(Kuder-Richardson-20)로 측정한 신뢰도는 .55이다.

4) 중년기 생활만족도

중년기 생활만족도의 측정도구는 Hayes와 Stinnett(1971)가 개발한 MYLSS(Middle Years Life Satisfaction Scale)를 본 연구자가 한국문화에 맞도록 번안제작하여 사용하였다.

본래 MYLSS는 총 35문항으로서, 부부관계, 건강, 생활표준, 직업, 자녀관계, 여가시간과 사회활동, 자아개념의 7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하위척도 마다 5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자녀관계를 묻는 문항 중 "나의 출가한 자녀는 연락이 거의 없고 내가 방문하길 원하는 만큼 자주 집에 오지 않는다"는 문항은 한국의 실정에 맞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 삭제하고, 자아개념에 관련된 문항 중 "나는 내가 성취한 성공이 나의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노력보다는 행운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은 내외통제적 성격과 관련된

문항으로 판단되어 제외시켜 본 연구에서는 33문항만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형 척도로 측정하였다. 측정방식은 긍정적 문항일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에 가장 낮은 점수인 1점이 “매우 그렇다”에 가장 높은 점수인 5점이 주어지고, 반대로 부정적 문항일 경우에는 “매우 그렇다”에 1점을 “전혀 그렇지 않다”에 5점을 주는 방식으로 점수를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MYLSS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가 .85이므로 척도의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 자료수집의 절차 및 분석방법

본 조사의 실시예 앞서 1991년 9월 3일부터 6일에 걸쳐 본 연구 목적에 부합되는 중년기 남성 28명과 여성 22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예비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문항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사회계층을 고려하여 서울시내에 소재한 6개 고등학교와 2개 대학교를 선정한 후 학부모 500명에게 1991년 9월 10일부터 28일까지 질문지를 배부하여 실시하였다. 총 426부를 회수하여(회수율 85%), 부실기재된 질문지나 대상외의 질문지 52부가 제외된 374부의 질문지(남자 185부, 여자 189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SAS Program Package를 이용하여 통계처리되었으며, 평균, 표준편차, 문항 분석, 요인분석, t검증, 변량분석, Duncan의 다중범위검증법, X²검증, 공분산분석, 피어슨 적률상관계수 산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등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V. 결과 및 해석

1. 중년기 남녀의 성역할 정체감, 내외통제적 성격, 생활만족도

1) 성역할 정체감의 분포

BSRI척도의 남성성 중앙치 점수(3.3)와 여성성 중앙치 점수(3.8)를 기준으로 연구대상자들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을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형의 네 집단으로 분류해 본 결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성성이 31.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미분화형이 28.1%, 여성성이 21.1%, 남성성이 19.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성별로 분리해 보면 중년기 남성에게는 양성성이 35.7%로 가장 많았으며, 남성성은 25.4%, 미분화형은 23.8%, 여성성은 15.1%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년기여성에게는 미분화형이 32.3%로 가장 많았고, 양성성과 여성성이 27.0%로 같은 비율을 보였으며, 남성성이 13.7%로 가장 적었다.

성역할 정체감과 성별과는 χ^2 검증 결과 유의적인 관계가 있었고($\chi^2=17.372$, $p<.001$), t검증 결과 남성성에서는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p<.001$), 여성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전반적으로 남성성과 여성성이 비슷하게 발달되어 있는 양성성과 미분화형을 합해 보면 59.3%로 성유형화된 사람보다 많다. 이러한 결과는 노년기에서의 성역할 정체감과 생활만족도와 관계 연구에서(김태현, 유은희, 1987) 나타난 한국 노인의 성역할 정체감 분포와 비슷하다. 이는 부모역할의 책임때문에 남성적 역할과 여성적 역할이 뚜렷하게 구분되었던 초기 성인기에 비하여

표 2. 중년기 남녀의 성역할 정체감의 분포

단위 : 명(%)

변 인	성역할 정체감의 유형			
	양 성 성	남 성 성	여 성 성	미분화형
남 성	66(35.7)	47(25.4)	28(15.1)	44(23.8)
여 성	51(27.0)	26(13.7)	51(27.0)	61(32.3)
전 체	117(31.2)	73(19.5)	79(21.1)	105(28.1)

(Gutmann, 1975, 1977), 중년기에는 부모역할의 감소로 남성과 여성 모두 성역할의 뚜렷한 구분이 없어졌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중년기에 부모역할의 감소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양성적인 성역할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선행연구(Gutmann, 1976; Livson, 1976; Brim, 1976)와 부분적으로 일치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즉 전통적인 성역할 분리교육을 받았으리라고 생각되는 우리나라의 중년기 남녀도 부모역할의 감소로 뚜렷한 성역할의 구분보다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비슷하게 발달시켜 양성성과 미분화형이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 내외통제적 성격

본 연구대상자 전체의 내적인 점수의 평균은 6.39로 나타나서 다소 내적인 통제신념의 위치에 속해 있는 점수로 볼 수 있다. 남성의 내적인 점수 평균은 6.48, 여성의 내적인 점수 평균은 6.31로써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중년기 생활만족도의 수준

중년기 생활만족도 점수의 가능한 득점범위는 최하 55점에서 최고 154점까지인데, 연구대상자의 전체의 평균치는 105.59로 나타나서 중간 수준의 생활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남성의 생활만족도 점수의 평균은 107.60이고, 여성의 생활만족도 점수의 평균은 103.62로써 중년기 남성이 중년기 여성보다 높은 생활만족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중년기 남성의 생활만족도 점수가 여성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생활만족도에서 중년기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얻은 Hayes와 Stinnett(1971)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년기 여성이 두배나 더 많은 심리적 문제가 있고(Giele, 1982),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으며(강인, 1990; 김명자, 1991), 위기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김명자, 1989)고 보고한 연구결과와는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Baruch등은 부모역할이 특히 여성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여성의 복지감을 남성에 비해 훨씬 많이 떨어뜨린다고 했으며, 청소년기 자녀

와의 갈등은 어머니의 낮은 복지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아버지와는 관계가 없다고 하여(Tompson & Walker, 1989)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여러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중년기에 처한 여성은 남성보다 적응에 더 어려움을 겪는다고 볼 수 있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중년기 생활만족도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중년기 남녀의 생활만족도는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제반 변인들과의 관계를 변량분석한 결과인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년기 남성과 여성의 생활만족도는 연령, 교육정도, 남편의 직업, 가계소득, 종교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년기 남성과 여성의 생활만족도는 연령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데($p < .05$), 추후검증결과 55~59세 집단의 생활만족도가 40~44세, 45~49, 50~54세 집단보다 의미있게 높음을 알 수 있다. 50대 후반은 빈둥우리시기로, 남녀 모두 부모 역할에서의 요구가 감소되면서 자녀 양육의 부담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원인이 되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교육정도는 남성에게는 $p < .001$ 수준에서, 여성에게는 $p < .05$ 수준에서 중년기 생활만족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추후검증 결과 대학중퇴 이상의 중년기 남성과 여성이 다른 집단보다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육수준이 높은 중년기 여성은 자녀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서 자녀 독립기에 더욱 어려움을 경험하며(Thompson, 1980), 그들의 목표가 성취되지 않았을 때 병리학적인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Cox, 1980)는 견해와 일치하지 않으나, 중년기 남녀 모두 학력이 높을수록 위기감 수준이 낮았고(김명자, 1989), 고졸, 전문대졸과 중졸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주부의 위기감이 대졸이상의 주부보다 상대적으로 높다(신기영, 옥선화, 1991)는 연구결과와는 일치한다.

남편의 직업종류에 따라 중년기 남녀의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보이는데, 성별로 살펴보면, 중년기

표 3.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중년기 남녀의 생활만족도

독립변인	구분	남성(N=185)				여성(N=189)			
		빈도	평균점수	F	Duncan's	빈도	평균점수	F	Duncan's
연령	40~44세	19	109.31	3.50*	A	87	104.95	3.50*	A
	45~49세	81	107.82		A	60	101.83		A
	50~54세	62	104.03		A	31	100.51		A
	55~59세	23	115.04		B	11	111.63		B
교육정도	하	22	105.77	8.7***	A	58	99.36	3.81*	A
	중	84	102.70		A	97	104.32		AB
	상	79	113.32		B	34	108.91		B
남편직업	하	26	99.76	5.02**	A	30	102.16	3.61*	A
	중 하	60	105.81		A	66	99.75		AB
	중 상	43	106.58		A	30	102.40		AB
	상	56	113.94		B	63	108.95		B
여성취업유무	유	37	105.21	.95		38	102.39	.50	
	무	148	108.20			151	103.93		
가계소득	하	48	102.66	9.30***	A	45	99.15	2.23	
	중 하	45	100.75		A	49	102.08		
	중 상	49	111.16		B	55	106.50		
	상	43	116.23		B	40	106.57		
가족형태	확대가족	31	108.83	.43		29	105.89	.79	
	핵가족	154	107.36			160	103.20		
결혼지속년수	20년이하	77	107.88	.50		79	104.40	.12	
	21~25년	65	106.56			65	102.95		
	26~30년	32	107.09			31	102.83		
	31년이상	11	113.27			14	104.07		
종교유무	유	108	109.17	1.40		150	104.66	2.13*	
	무	74	105.58			39	99.61		
자녀수	1명	5	108.14	0.33		6	105.83	.83	
	2명	68	108.14			61	104.82		
	3명	63	107.39			74	101.31		
	4명	35	105.37			35	103.97		
	5명이상	14	111.21			13	109.23		
막내자녀위치	중학재학	79	106.01	.62		79	103.13	.06	
	고등학교	84	108.64			83	103.89		
	대학이상	22	109.36			27	104.22		
만자녀수	고졸이하	66	105.75	.59		56	105.87	1.75	
	대학이상	57	107.49			59	103.08		
	기타	40	109.22			54	100.09		
	결혼	22	110.50			20	108.45		

*p<.05

**p<.01

***p.001

남성은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p < .01$). 즉, 관리직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남성이 다른 집단보다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기 남성이 직업역할에서 성공했다고 인식할때 남편역할에서도 성공했다고 인식하며 이런 역할에서 유능함에 대한 인식은 직업역할과 남편역할 모두에서의 만족감과 관련되며 (Draughn, 1984), 중년기 남성에게 있어 비교적 성공적인 전문직 종사자, 자본가등 엘리트 집단의 남성의 위기감이나 초조감이 뚜렷하게 낮게 나타났다 (Vaillant, 1977), 직업지위가 낮은 사람이 직업과 관련하여 스트레스와 권태감이 높았다 (Lowenthal et al, 1976)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중년기 여성의 경우에도 남편의 직업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데 ($p < .05$), 추후검증 결과 남편의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남편의 직업지위에 따라 중년기 주부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이강윤, 1986), 남편이 전문직에 종사할수록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수준이 낮다는 김명자(198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중년기 여성이 자신의 취업유무나 직업지위보다는 남편의 직업지위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 중년 여성의 경우 제한된 사회참여와 자아실현 기회의 부족으로 여성자신의 자아를 개발하기 보다는 남편에게 의존하는 상태에 머물면서 대리만족을 얻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할 수도 있다.

가계소득에 따른 중년기 남성의 생활만족도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거나 여성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 < .001$). 중년기

남성의 생활만족도와 가계소득을 추후검증한 결과 90만원 미만과 90~120만원 집단보다는 120~180만원, 180만원 이상인 집단의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나서 가계소득이 높을 수록 생활만족도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우에도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가계소득이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집단이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가시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종교유무에 따른 중년기 생활만족도는 남성에게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여성에게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p < .05$), 종교의 종류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종교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종교가 있는 여성이 종교가 없는 여성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남성의 중년기 위기감은 종교유무, 종교종류, 종교참여도 등에 의하여 의미있는 영향을 받지 않으나, 여성의 중년기 위기감은 종교종류와 종교참여도에 의해 의미있는 영향을 받는다는 김명자(1989)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종교의 종류에 상관없이 종교가 있는 중년기 주부의 위기감이 낮게 나타난 신기영, 옥선화(1991)의 연구결과와는 완전히 일치한다. 이렇게 볼 때 종교는 중년기 남성보다는 중년기 여성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중년기 여성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어 적응을 도울 수가 있다.

그 밖에 여성의 취업유무, 가족형태, 결혼지속년수, 자녀수, 막내자녀의 위치, 만자녀의 위치 등의 독립변인은 중년기 남녀의 생활만족도와 유의하게 관련되지 않았다.

3. 성격특성과 중년기 생활만족도

1) 성역할 정체감과 생활만족도

표 4.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중년기 남녀의 생활만족도

유형	남성				여성			
	빈도	평균점수	F	Duncan's	빈도	평균점수	F	Duncan's
양성성	56	108.32	3.23*	AB	38	112.02	6.40***	A
남성성	44	113.27		A	20	100.50		B
여성성	22	109.18		AB	45	104.95		AB
미분화형	44	102.22		B	61	97.65		B

* $p < .05$ *** $p < .001$

성역할 정체감과 중년기 남녀의 생활만족도간에 피어슨의 적률상관 계수를 산출한 결과 남성성($p < .001$)과 여성성($p < .01$)이 모두 생활만족도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표 4에서는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중년기 남녀의 생활만족도가 나타나는데, 중년기 남성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과 생활만족도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 < .05$), 추후검증 결과 남성성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여성성과 양성성의 생활만족도는 비슷하였고, 미분화형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중년기 여성의 경우에도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p < .001$) 양성성 집단의 생활만족도가 여성성, 남성성, 미분화형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50세 경에 남성의 경우 남성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여성의 경우 양성성을 지녔을 때 여성성을 고수하는 여성보다 더 심리적으로 성숙하다고 보고한 Livson(197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성역할 정체감과 내외통제성의 두 가지 성격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를 보기 때문에 내외통제성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성역할 정체감과 생활만족도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공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공분산 분석 결과 내외통제성을 통제했을 경우에 남성은 성역할 정체감의 유형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1$).

성과 성역할 정체감의 일치나 불일치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가를 보기 위해 남성성이 높고 여성성이 낮은 남성과, 여성성이 높고 남성성이 낮은 여성을 한 집단으로 구성하고, 남성성이 높고 여성성이 낮은 여성과 여성성이 높고 남성성이 낮은 남성을 다른 한 집단으로 하여 두 집단간의 생활만족도를 비교해 본 결과 성역할 정체감의 일치 집단($N=89$, $M=109.06$, $SD=17.35$)과 불일치 집단($N=42$, $M=105.04$, $SD=17.45$)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년기에 남성성이나 여성성

그 어느것이 뚜렷이 더 발달해 있느냐는 생활만족에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오지 못하고, 단지 남성성과 여성성이 고루 발달되어 있는 양성성 성역할 정체감인 경우에 생활만족도가 높고, 두가지가 모두 낮은 미분화형인 경우에 생활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서,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라 중년기의 적응이 달라짐을 보여준다.

2) 내외통제적 성격과 중년기 생활만족도

내외통제적 성격에 따라 중년기 남녀의 생활만족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피어슨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해 본 결과, 내외통제적 성격과 중년기 남녀의 생활만족도 사이에는 정적인 상관($r = .32$)이 있었다($p < .001$). 이러한 연구결과는 내제통제적 성격이 적응과 관련된다는 선행연구들(Felton & Kahana, 1974; Wolk & Kurtz, 1975; Wolk, 1976; Schulz & Decker, 1985; 박석기, 1984)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변동과 전환의 시기인 중년기에 내제통제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4. 중년기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중년기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변인들간의 피어슨 적률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표 5), 각 변인들간에 상관관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역할 정체감, 내외통제적 성격이 중년기 남녀의 생활만족도에 어느 정도 설명력을 가지고 기여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남녀별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5%수준이상에서 유의적인 변인들만 선정하였다.

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년기 남성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은 가계소득, 내외통제적 성격, 교육정도, 남성성 성역할 정체감으로 나타났고, 이들 4개 변인의 설명력은 27%였다. 즉,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내제 통제적인

표 5. 변인들간의 피어슨 적률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N=374)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연령	1.00										
교육정도	.19	1.00									
남편의 직업	.11	.45	1.00								
부인의 직업	.02	.12	.07	1.00							
가계소득	.06	.33	.37	.27	1.00						
결혼지속년수	.74	-.02	.05	-.01	.00	1.00					
자녀수	.35	-.11	-.03	-.09	-.07	.46	1.00				
내외통제성	.07	.11	.09	.04	.09	-.02	-.02	1.00			
남성성	.06	.14	.02	.11	.07	-.08	-.00	.26	1.00		
여성성	.06	.03	.11	.02	.02	.03	-.02	.21	.14	1.00	
생활만족도	.03	.27	.24	.03	.27	.01	.00	.32	.29	.16	1.00
평균	47.63	4.30	5.67	1.74	5.14	22.62	2.94	6.39	33.00	37.36	105.59
표준편차	4.06	1.19	2.18	1.64	2.37	4.47	1.02	2.25	6.28	6.03	16.91

*p<.05 **p<.01 ***p<.001

표 6. 중년기 남성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중속 변인 : 중년기 남성의 생활만족도				
단계	독립 변인	B	β	Partial R ²
1	가계소득	1.619	.22***	.13
2	내외통제적 성격	1.790	.24***	.09
3	교육정도	1.745	.12**	.03
4	남성성성역할정체감	0.380	.12*	.02
	R ²			.27

*p<.05 **p<.01 ***p<.001

표 7. 중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중속 변인 : 중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				
단계	독립 변인	B	β	Partial R ²
1	여성성성역할정체감	0.795	.28***	.09
2	남성성성역할정체감	0.500	.18***	.06
3	교육정도	1.968	.12**	.04
4	내외통제적 성격	1.343	.17*	.03
5	가계소득	1.081	.15*	.01
	R ²			.24

*p<.05 **p<.01 ***p<.001

성격일수록,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남성성 성역할 정체감을 가질수록 중년기 남성의 생활만족도가 높으며 그들의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7에 중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가 나타나 있는데, 남성과 비슷한 변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중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은 여성성과 남성성 성역할 정체감, 교육정도, 내외통제적 성격, 가계소득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성이거나 남성적 성역할 정체감의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내외통제적 성격일수록,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중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들 5개 변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은 24%이다.

결론적으로 중년기 남녀의 생활만족도에 기여하는 변인은 교육정도, 가계소득, 성역할 정체감, 내외통제적 성격으로 중년기 남성과 여성의 생활적응에 성격특성이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중년기 남성의 경우에는 가계소득이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설명력을 가졌고($\beta=.22$), 여성의 경우에는 성역할 정체감(여성성 $\beta=.28$, 남성성 $\beta=.18$)이 가장 큰 설명력을 가져서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격특성과 중년기 적응을 관련시킨 선행연구가 없으므로 해석에 무리가 따르지 만, 남성에게 공급자 역할(provider role)은 핵심이 되고 이 역할에서의 부적합함은 남성자신은 물론 그의 가족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Nye & Berardo, 1978; Draughn, 1984 재인용), 가계소득이 중년기 남성의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중년기 남성은 가장으로서 가족 구성원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을 지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따라 경제적인 공급자로서의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이것이 그들의 생활만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추측된다. 또한 남성에게 내외통제적 성격이 중요하게 나타난 것은 생활만족도와 통제사이의 관계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Hikson과 동료들(198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중년기 남성이 가정의 경제적인 기능을 충족시켜야 할 책임을 가지는 반면 중년기 여성은 가정의 정서적인 기능을 충족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여성에게는 자기자신이 얼마만큼 여성적이거나 남성적인 성격특성을 가졌다고 보는가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성역할 정체감이 중년기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다.

VI.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지금까지 중년기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위기감을 중심으로 적응을 파악했고, 중년기의 적응과 관련된 변인들을 연구하면서 개인의 성격 특성은 거의 다루지 못했던 제한점을 해결해 보

고자, 적응과 관련되는 성격특성인 성역할 정체감 및 내외통제적 성격과 중년기 남녀의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중년기에 처한 개인의 생활적응을 돕고 더 나아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맞이하는데 기여하며, 중년기 연구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현재 결혼상태에 있는 중년기 남녀로 연령은 40~59세 사이이고 적어도 막내자녀가 중학교 이상에 재학중인 학부모 374명(남성 185명, 여성 189명)이었으며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중요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중년기 남녀의 성역할 정체감은 일반적으로 양성성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미분화형, 여성성 유형, 남성성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남성에게는 양성성, 남성성, 미분화형, 여성성 유형의 순서로 나타났고, 여성에게는 미분화형, 양성성, 여성성, 남성성 유형의 순서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인 중년기 남녀는 다소 내적통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만족도는 중간 정도의 수준이고 중년기 남성의 생활만족도가 여성의 생활만족도 보다 의미있게 높았다.

본 연구결과에서 중년기에 전통적으로 성유형화된 사람보다 남성성과 여성성이 비슷하게 발달된 양성성과 미분화형이 더 많이 나타난 것은 40대 이후 중년기에 막내자녀가 중학교 이상 성장하여 부모로 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게 되면서, 부모 역할이 두드러지게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여성에게서 양성성보다는 미분화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40, 50대는 성역할 분리교육을 받아왔으므로 전통적인 성역할을 이상적인 것으로 보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내면화되어 중년기에 와서 여성적 역할을 요구하는 생활환경이 감소되었으나 남성성을 충분히 발달시키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년기 남성들은 그들 직업에 더욱 전념하면서 인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성보다 더 높은 생활만족도를 보이는 반면, 여성은 가정주부로서만 살아왔으므로 중년기에 들어 자신의 자아를 재확립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지 못해 심리적 허탈감에 빠지고, 직장일에 몰두하는 남편에게서 소외감을 느끼며, 자녀의 성장과 독립에 따른 공허감을 경험하기 때문에 중년기에 적응이 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년기 여성이 자녀를 기르는 동안 소홀히 했던 자신의 관심거리를 찾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중년기 남성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연령, 교육정도, 직업, 가계소득으로, 연령이 55~59세일 때, 교육정도가 높을 때, 직업이 관리직, 전문직일 때,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중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연령, 교육정도, 남편의 직업, 종교유무로, 연령이 55~59세일 경우, 교육정도, 남편의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종교가 있을 때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세째, 성격특성에 따라 중년기 남녀의 생활만족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본 결과 성역할 정체감, 내외통제적 성격과 중년기 남녀의 생활만족도간에는 유의한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기 남성의 경우 성역할 정체감이 남성성 유형일 때, 중년기 여성의 경우에는 양성성 유형일 때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미분화형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남성과 여성 모두 내적통제적 성격을 가질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양성성과 남성성 유형의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며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남성적 역할과 여성적 역할이 비슷하게 요구되기 시작하는 중년기 생활에서 양성성으로의 변화가 중년기의 적응에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중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는 성역할 정체감이 미분화형일 때 가장 낮고, 양성성 유형일 때 가장 높게 나타났으므로, 중년 여성이 남성성, 여성성 성역할정체감을 균형있게 발달시키고, 중년기에 만족한 생활을 보낼 수 있게끔 새로운 성

역할 개념에 근거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내외통제적 성격과 중년기 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에서 내적통제적 성격의 중년기 남성과 여성이 그들의 생활에 더 만족함을 볼 때 개인이 내적통제를 할 수 있는 환경개선, 자기수양, 자아실현을 위한 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네째, 중년기 남녀의 생활만족도에 기여하는 변인은 교육정도, 가계소득, 성역할 정체감, 내외통제적 성격으로 밝혀졌다. 관련변인들의 독립적 영향력은 남성의 경우에는 가계소득, 내외통제적 성격, 교육정도, 남성성 성역할 정체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4개의 변인이 중년기 남성의 생활만족도를 27% 정도 설명해 주고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성 성역할 정체감, 남성성 성역할 정체감, 교육정도, 내외통제적 성격, 가계소득의 순으로, 이들 5개 변인의 중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은 24%였다.

중년기에 남성에게는 가계소득이 적응에 가장 중요하고 여성에게는 성역할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아직도 우리 사회의 중년기 남녀가 과거의 전통적 관념에서 크게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남성은 여전히 가정밖에서 가족의 부양을 위한 도구적 역할을, 여성은 표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자신의 정체감과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낮은 남성일수록 경제적인 공급자로서의 자아정체감이 혼미되어 생활만족도가 낮고 위기를 경험하게 되리라 생각된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하류계층의 중년기 남성의 적응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중년기 위기는 산업자본주의 산물로 생겨난 계층차에서 오는 소외감과 열등감이 관련되어 저소득층의 남성에게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상류층 남성에게 중년기는 최고의 절정기가 되므로, 중년기 위기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계층에 따른 문제로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성은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책임자로서의 책임에 따른 부담을 지며,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여성보다 더 많이 겪기 때문에 중년기

남성의 적응에 내적통제적 성격이 성역할 정체감보다 중요하게 관련됨을 알 수 있다.

한편 남성에 비해 여성은 경제적인 책임자가 아니라 가정안에서 정서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전통적인 여성성 성역할 정체감을 가지는 것이 중년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중년기 생활만족도에 여성성 유형 뿐만아니라 남성성 유형도 많은 기여를 한다는 결과는 중년기에 여성성과 남성성 둘 다 발달시키는 양성성 유형이 적응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본 연구에서 중년기에 처한 남성과 여성이 경험하는 심리적 상태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중년기에 관한 후속연구에서 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결과 변화와 전환의 시기인 중년기 뿐만 아니라 노후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연구에서 개인의 성격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입증해 준다.

결론적으로 중년기 남녀가 그들의 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하여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한 개인의 물리적 정신적 자원확보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중년기에 맞이하게 되는 성격변화를 자신의 성장기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성인교육과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집대상을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40~59세 사이의 연령으로 결혼상태에 있고 막내자녀가 중학교 이상에 재학중인 남성과 여성을 의도적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서울시내에 거주하지 않는 중년기 남녀와 무자녀, 독신, 이혼, 사별한 중년기 남녀, 은퇴시 까지도 어린 자녀와 함께 사는 중년기 남녀에게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활유형을 지닌 중년기 개인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표본 선정시 계층을 고려하였으나 중류에 치중되었다. 중년기 남성의 적응에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계층을 포함시켜 중년기 남성의 적응을 설명하는데 보다 정확한 계층간의 비교를 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대상자인 중년기 여성의 대부분이 비취업의 가정주부이고 취업한 경우라 하더라도 남편을 돕는 자영상공인이었으므로 여성의 취업유무에 따른 생활만족도를 비교해 보려 했으나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비한 점을 고려하여 전문직의 취업여성을 더 많이 표집하여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셋째, 성역할 정체감과 내외통제적 성격만을 중년기 적응과 관련시켜 연구했으며 기타 다른 성격특성은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좀 더 다양한 성격특성과 중년기 적응과의 관계를 파악해 보기를 기대한다.

넷째, 횡단적 자료에 의한 연구이므로 연구결과가 현대 한국사회라는 특수한 상황속에서 살아가는 중년기 남녀의 일반적인 현상인지 동시집단 효과(cohort effect)인지를 명확히 분석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 종단적인 연구를 실시한다면 성격특성과 중년기의 적응에 많은 시사점을 주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1) 강 인(1990). "중년기 가족스트레스와 가족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김남순(1986). "한국 중년남녀의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 김명자(1989). "중년기 위기감 및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4) 김명자(1991). "중년기 부부의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양식과 위기감". *대한가정학회지* 29(1), 203-216.
- 5) 김재은(1983). *인간 발달과정*, 서울:전망사.
- 6) 김태현·유은희(1987). "노년기에서의 성역할 정체감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5(4), 113-121.
- 7) 박경숙·김명자(1991). "중년기 여성의 적응에

- 관한 연구-폐경에 대한 태도와 성역할 정체감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pp. 65-80.
- 8) 박석기(1984). "내외통제적 성격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신기영·옥선화(1991). "중년기주부의 위기감과 사회관계망원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161-178.
 - 10) 윤진(1985). *성인·노인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11) 이강윤(1986). "도시 중년기 주부의 자아존중감 및 고독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이종숙(1988). "주부의 내외통제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3) 이훈만(1986). "중·고등학생의 인생목적과 내외통제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4) 장경문(1984). "정상, 비행 청소년의 내외통제성과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장재정(1987). "중년여성의 성역할 정체감과 심리적 건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6) 정옥분(1986). "한·미 양국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자존감에 관한 비교문화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4(2).
 - 17) 지연경(1991). "내외통제성 및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지각과 생활만족도-은퇴한 남자노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8) 홍순혜(1984). "활동이론에 따른 한국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9) Baker, E.K.(1976). "Relationship of retirement and satisfaction with life events to locus of control".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7(913), 4748.
 - 20) Bassoff, E.S.(1984). "Relationships of sex-role characteristic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n new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2), 449-454.
 - 21) Bem, S.L.(1975). "Sex role adaptability; One consequence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4), 634-643.
 - 22) Block, J.H.(1973). "Conception of sex role: some crosscultural and longitudinal perspectives". *American psychologist* 28(6), 512-526.
 - 23) Borland, D.C.(1978). "Research on middle age: An assessment". *The Gerontologist* 18(4), 379-386.
 - 24) Brim, O.G.(1976). "Theories of the male mid-life crisis". *Counseling psychologist* 6, 2-9.
 - 25) Carp, F.(1985). "Relevance of personality traits to adjustment in group living situations". *Journal of Gerontology* 40(5), 544-551.
 - 26) Cooper, K.L. & Gutmann, D.L.(1987). "Gender identity and ego mastery style in middle age, pre- and post-empty nest women". *The Gerontologist* 27(3), 347-352.
 - 27) Cox, D.B.(1980). "Illness behavior in mid-life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Maryland.
 - 28) Dobson, C.(1983). "sex-role and marital-role expectations". *Family relation ships in later life* (ed.), T.H.Brubaker, Sage publications, Inc.
 - 29) Draughn, P.S.(1984). "Perceptions of competence in work and marriage of middle-age 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2), 403-409.
 - 30) Farrell, M.P. & Rosenberg, S.D.(1981). "Men at midlife". Boston: Simon and Schuster.
 - 31) Felton, B. & Kahana, E.(1974). "Adjustment and situationally-bound locus of control among institutionalized aged". *Journal of Gerontology* 29(3), 295-301.
 - 32) Fitch, G.(1970). "Effects of self-esteem, perceived performance, and choice on causal attribu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6, 311-315.
 - 33) Giele, J.Z.(1982). "Women in adulthood: Unanswered questions". *Women in the middle years* (ed.), J.Z.Giele, New York: John Wiley & Sons.
 - 34) Gutmann, D.L.(1975). "Parenthood, key to comparative study of the life cycle". *Life 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Normative life crises*, (eds.), N. Datan & L.Ginsberg, New York: Academic Press.

- 35) Gutmann, D.L.(1976). "Individual adaptation in the middle years ; Developmental issues in the masculine mid-life crisis".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9, 41-559.
- 36) Gutmann, D.L.(1977). "The cross-cultural perspective ; Notes toward a comparative psychology of aging".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aging* (eds.), J.E. Birren & K.W.Schaie, New York : Van Nostrand Reinhold.
- 37) Gutmann, D.L.(1978). "Personal transformation in the post-parental period ; A crosscultural view, Washington, D.C. :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 38) Hayes, M.P. & Stinnett, N.(1971). "Life satisfaction of middle aged husband and wives". *Journal of Home Economics* 63(9), 669-674.
- 39) Hickson, J., Housley, W.F. & Boyle, C.(1988). "The relationship of locus of control, age, and sex to life satisfaction and death anxiety in older person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26(3), 191-199.
- 40) Kagan, J.(1964). "The acquisition and significance of sex typing and sex role identity,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1, (eds.), M.L.Hoffman & L.W.Hoffman, New York : Russell Sage Foundation.
- 41) Kimmel, D.C.(1980). "Adulthood and aging" 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
- 42) Kivett, V.A.(1976). "Psychological and social predictors of locus of control among middle aged adult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7(5 B), 2481.
- 43) Krause, N.(1986). "Stress and coping ; Reconceptualizing the role of locus of control beliefs". *Journal of Gerontology* 41(5), 617-622.
- 44) Levitt, M.J., Clark, M.C., Rotton, J., & Finley, G.E. (1987). "Social support, perceived control, and well-being ; A study of an environmentally stressed popul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Human Development* 25(5), 247-257.
- 45) Lieberman, M.A.(1980). "Social and Psychological determinants of adaptation". Being and becoming old (ed.), J.Hendricks, New York : Baywood Publishing Com. inc.
- 46) Livson, F.B.(1976). "Patterns of personality development in middle aged women ; A longitudin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Human Development* 7, 107-115.
- 47) Lowenthal, M.F., Thurner, M. & Chiriboga, D. (1976). "Four stages of life". San Francisco : Jossey-Bass.
- 48) Palmore, E. & Kivett, V.(1974). "Change in life satisfaction ; A longitudinal study of persons aged 46-70". *Journal of Gerontology* 32(3), 311-316.
- 49) Palmore, E. & Luikart, C.(1972). "Health and social factors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68-79.
- 50) Rotter, J.B.(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80, 1-28.
- 51) Suh, H.(1987). "The relationships among life satisfaction, locus of control, and death anxiety as perceived by Korean and American older adults using selected personal demographic variables". Ph.D. The Ohio state University.
- 52) Suhulz, R, & Decker, S.(1985). "Longterm adjustment to physical disability ; The role of social support, perceived control, and self-blam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1162-1172.
- 53) Thompson, M.J.(1980). "Identity attainment on mid-life females ; An assessment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 54) Thompson, L, & Walker, A.J.(1989). "Women and men in marriage, work and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845-871.
- 55) Vaillant, G.E.(1977). "Adaptation to life" Boston : Little Brown.
- 56) Whitley, B.E., Jr.(1984). "Sex-role orient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 Two meta-analyses". *Sex Roles* 12, 207-225.
- 57) Wolk, S.(1976). "Situational constraint as a moderator of the locus of control-adjustment relation-

- ship".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4(3), 420-427.
- 58) Wolk, S. & Kurtz, J.(1975). "Positive adjustment and involvement during aging and expectancy for internal control".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2), 173-178.
- 59) Worell, J.(1978). "Sex Rol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 Perspective on Metholog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4), 777-791.